

# 최근 북한의 대남 ‘저강도 다발성’ 도발

## Online Series

2024. 06. 19. | CO 24-41

박 영 자(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한국에 네 차례 걸친 ‘오물 풍선’을 살포한 것과 더불어, GPS(글로벌 위성항법장치) 교란과 함께 해킹 도발까지 지속하고 있다. 다양하고 동시적인 저강도·다발성·원격 도발의 특징을 보인다. 이 글은 그 배경과 함께 의도와 목적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밝히고자 한다.

### 북한 내부 정치군사적 배경

현재 ‘김정은 수령화’에 집중하고 있는 북한정권은 제9차 당대회(2026년 1월 예상)를 준비하며, 8차 당대회에서 제기한 분야별 과업의 조기완수를 목표로 역량을 집결하고 있다. 김일성 보다 위대한 ‘김정은 수령체제’ 구축을 위한 각종 건설과 농업, 그리고 새로운 이데올로기 구축에 매진하며 전 인민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즉, 북한 내부 정치적 배경으로 최근 북한정권은 체제의 ‘내구력 향상’을 의도한 내치에 집중하고 있다.

군사기술적 배경으로 첨단전략무기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저강도 도발을 위한 기술 실험 측면이다. 북한은 전략적으로 핵탄두의 소형화와 미사일 능력 개선과 함께, 타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정찰위성 개발에 집중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핵무기는 쉽게 사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핵무기를 보좌하며, 일상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각종 저강도 도발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발전을 의도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북한당국은 대남 적개심 고조와 일상적 도발 기술의 발전을 의도하며,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도발이



아닌 통신 장비 등을 통한 저장도 원격 도발을 발전시키고 있다.

### 대외·대남 정책적 배경

먼저 국제정치적 배경이다. 현재 국제적으로 두 개의 전쟁<sup>1)</sup> 양상이 승패를 향해 격전하는 상황, 미국 대선 등 세계적 리더십 전환의 흐름, 미중경쟁 속 중국이 정세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의 한반도 정세안정 요구’를 크게 벗어날 수 없다. 현재 전쟁 중인 러시아와 달리, 중국은 내부 경제사회적 문제와 미국과의 관계 등을 중시하며, 북중러 연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 대북제재 해제와 경제문제 해결 등에 중국의 지원이 절실한 북한은 중국의 태도를 주시하며 고강도 도발에 신중한 모양새이다.

대남 정책적 배경이다. 북한이 올해 초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정의하고, 연방제 통일안 폐기, 영토 조항을 포함한 헌법 개정 등을 선언한 후 후속 작업 과정에서의 대남 적대성 표출이다. 상반기 수행되었어야 할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최고인민회의 등이 연기되며 ‘김일성의 연방제 통일방안’ 폐기 관련 북한 엘리트 내부의 진통이 추정되는 상황에서 대내 집결을 위한 대남 적대심 고조 차원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2024년 5월 24일金正은의 직접 명령을 기점으로 최근 북한의 대남 ‘저강도 다발성’ 도발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담화를 통해, “(5월) 24일 우리(북한) 최고군사지도부는 군대에 ... 국가주권에 대한 적들의 도발적인 행동에 공세적 대응을 가하라”<sup>2)</sup>며 맞대응 논리에 따른 공세적 대응을 지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북한 내부의 권력구조 측면에선 김정은의 통일론 폐지와 함께 각종 대남기구를 폐지한 후, 상대적으로 비대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찰총국이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와 연동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최근 북한의 저장도 원격 도발인 대남 오물 풍선, GPS 교란, 해킹 각각은 어떠한 의도와 목적하에 진행되고 있으며, 기대효과는 어떠한가?

1)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및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2) 김강일(북한 국방성 부상) 담화, “국가의 주권과 안전리익을 강력한 자위력으로 지켜낼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2024.5.26.

### <오물 풍선> 공격의 의도와 기대

북한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대남 오물 풍선 공격의 목적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을 비판하는 대북 전단에 대한 맞대응이다. “우리(북한)의 사상과 제도를 헐뜯는 정치선동오물인 빠라장들 … 심히 우롱모독한 한국 것들은 당할 만큼 당해야 한다”<sup>3)</sup>는 논리이다. 또 다른 하나는 ‘표현의 자유’라는 한국측 논리의 맞대응이다. 즉, “대한민국에 대한 빠라살포가 우리(북한) 인민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며 한국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sup>4)</sup>이라는 논리이다.

전체적으로 오물 풍선 도발의 의도와 기대효과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북한에 보내는 한국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 쓰레기/오물’이라는 인식을 국내외적으로 확장하려는 것이다. 둘째, 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남 심리전 차원이다. 북한은 위험한 집단이라 무슨 행동을 할 줄 모른다고 인식하게 하는 ‘미치광이 전술’의 일환이며, 남남갈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위협 및 실제 군사적 목적으로의 발전 가능성 탐색이다. 한국 민간단체의 풍선을 활용한 대북 전단 보내기에 대해, “기구를 리용한 살포행위는 특이한 군사적 목적으로도 리용될 수 있는 위험한 도발”<sup>5)</sup>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 <GPS 교란> 공격의 의도와 기대

북한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대남 GPS 교란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한편으론 한국측의 서해안 해상 활동에 대한 맞대응이다. 북한은 “한국괴뢰해군과 해양경찰의 각종 함선들이 기동순찰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구실로 우리(북한)의 해상국경선을 침범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sup>6)</sup>며 이에 대한 맞대응이라고 대남 GPS 교란을 정당화한다. 또 다른 한편으론, 서해안 북방한계선(NLL) 인근 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다. “빈번한 해상국경침범행위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sup>7)</sup>이라며 한국을 향해 선제적 위협을 가하였다.

3) 김여정,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의 표현의 자유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 『조선중앙통신』, 2024.5.29.

4) 위의 자료

5) 김강일, “국가의 주권과 안전리익을 강력한 자위력으로 지켜낼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2024.5.26.

6) 위의 자료

7) 위의 자료



전체적으로 GPS 교란의 의도와 기대효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이 남북 두 국가론 선언 후 영토조항을 포함한 헌법개정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영토분쟁의 핵심 장소가 될 수 있는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개입 강화이다. “해상주권이 지금까지 계속 침해당하는 것을 절대로 수수방관할 수 없으며 어느 순간에 수상에서든 수중에서든 자위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sup>8)</sup>을 경고하는 것이다.

둘째, 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쟁의 공포감 확장이다. “한국이 우리(북한)가 선포한 해상국경선을 존중하지 못하겠다고 두려워라도 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다”<sup>9)</sup>라는 담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서해안에서 남북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심리적 두려움을 확산시키려는 것이다.

셋째, 한국의 군사훈련 교란 및 기술적 공격이다. 최근 서해안 주민들이 경험한 GPS 교란은 심리전 성격이 크다. 그러나 북한이 전략적으로 중시하는 GPS 교란은 첨단군사전략 무기로써의 발전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다. 북한이 경제난 속에서 핵무기와 함께 첨단전략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향후 ‘저예산-고효율의 도발’ 전략 차원에서 GPS 교란을 중시할 것으로 보인다.

### <해킹> 공격의 의도와 기대

북한당국은 해킹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발표한 대표적 북한의 3대 해킹조직인 라자루스, 안다리엘, 김수키는 각각의 영역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방산관련 해킹을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동시적으로 공격하는 합동작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sup>10)</sup> 북한의 해킹은 정찰총국을 중심으로 정보수집, 심리전, 재정확보, 군사안보적 공격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과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최근 북한 해킹의 의도와 기대효과는 무엇일까? 첫째, 정보수집 및 심리전 차원이다. 최근 북한은 급변하는 대외 정세 분석관리 및 대남 적대심 고조 정책을 펼치는 상황이다. 이 정책의 연장선에서 정보수집 목적과 함께 대상 공격을 위한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에

8) 김강일, “국가의 주권과 안전리익을 강력한 자위력으로 지켜낼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2024.5.26.  
9) 위의 자료  
10)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 공조해 수사한 결과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 안다리엘, 김수키가 한국의 방산기술 탈취를 노리고 합동으로 공격한 사실을 처음 확인했다고 2024.4.23.일자 발표



대한 메일 해킹 포함 심리전이 결합된 도발이 진행되고 있다. 둘째, 재정보호이다. 2017년 대북제재 강화 이후 북한 해킹 목적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해킹을 통한 통치자금 확보로 추정된다. 셋째, 군사안보적 공격이다. 전 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회에서 해킹을 통한 도발은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큰 위협이며, 북한의 첨단전략무기 개발 전략과 연동되어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 향후 전망

올해 6~8월까지 북한은 고강도 도발 보다는 저강도 도발 기조를 유지하며 남북관계의 긴장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하여 북한의 네 차례에 걸친 대남 오물 풍선 투입 및 이에 대응한 한국의 대북 확성기방송 재개에 대해, 북한은 김여정 담화를 통해 이전보다 정중한 표현으로 긴장고조를 원하지 않음을 밝히면서, 동시에 향후 저강도의 새로운 도발에 대한 선제적 정당화를 하였다. “나는 서울이 더 이상의 대결위기를 불러오는 위험한 것을 당장 중지하고 자숙할 것”<sup>11)</sup>을 경고한다며 한반도 정세의 긴장완화 및 한국측의 자제를 요구한 것이다. 또한 한국측이 ‘대북전단 살포와 확성기방송을 병행’한다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 “설사없이 휴지를 주어담아야 하는 곤혹은 대한민국의 일상이 될 것”<sup>12)</sup>이라며 향후 저강도 도발의 일상화 가능성에 대해 예고하였다.

한편 김정은 정권은 푸틴의 방북성공을 최대화하며 6월 말 당전원회의를 앞두고 정세를 관리하면서 당전원회의를 통해 하반기 전략을 제시할 것이다. 따라서 6월 말 북한은 상반기 사업을 총화하고 하반기 사업을 구체화할 당전원회의 개최에 정치적 내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또한 식량부족기인 7~8월 식량대체 작물 수확 및 농업분야 성과도출 등 내부 관리에 치중할 것이다. 그리고 영토조향을 포함한 헌법 개정 등 김정은이 지시한 ‘남북 2국가론, 통일 폐기론’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러시아와의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면서 대북제재에 구멍을 낼 수 있는 ‘중국 견인’ 전략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것이다.

11) 『조선중앙통신』, 2024.6.9.

12) 위의 자료



이에 따라 올 여름에 북한은 고강도 도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올해 8월 한미연합훈련 시 핵운용훈련이 진행된다면 북한은 상당히 강하게 반응할 것이다. 그럼에도 그 시기는 9월 9일 북한의 정권수립일이 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중장기 전망 차원에서 북한의 원격 도발은 향후 더욱 다양화되고 고도화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본 북한의 원격 도발은 그 의도와 목적 모두에서 군사안보 이슈, 정보수집과 교란, 통치자금 마련, 심리전, 저비용-고효율 도발 무기 발전 등의 과제와 연계되어 있기에 전략적으로 더욱 고도화될 전망이다. ©KINU 2024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